일본불교 '설법제일'은 누가 될까

설법대회 'H1 법문 그랑프리' 오는 6월 개최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중요한 포교 방법인 설법. 이 설법을 주제로 한 대회가 열린다. 4월 12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교토신문' 등 주요 언론사들은 오는 6월에 열릴 설법대회 'H1 법문그랑프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기자회견에서 실행위원회는 "요즘 사회에선 '법문은 교훈뿐이라 지루하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러한 인상을 바꾸고 불교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대회 개최 의의를 전했다. H1이란 명칭은 일본어로 법문, 설법을 뜻하는 호와(法話)의 첫 글자와 최고를 뜻하는 숫자 1을 합친 것으로 '최고의 법문'이라는 뜻이다.

이 대회는 진언종 후잔파(真言宗 豊山派)의 젊은 스님들 모임인 후잔파 불교청년회가 연수의 성과발표회를 겸해 2017년 개최한 'H-1 그랑프리 설법대결'에서 시작했다. 당시 교단에서 뜨거운 반향을 얻은 설법대회는 지난해 11월 진언종 총본산인 고야산에서 진언종 청년교사회의 주최로 다시 한 번 개최됐다.

당시 고야산 대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코이케 요닌(32) 스님이 "종단의 벽을 넘어선 대회를 연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이라고 발의, 이번 대회가 기획됐다.

이번 설법대회의 실행위원장이기도 한 요닌 스님은 "스님들은 보통 불교신자들에게만 법문을 한다. 그러다보니 객관적으로 자신의 법문을 평가받는 일이 드물다. 불교를 떠나 스님 자신이 하고픈 말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

코베 천년고찰 스마데라서
7개 종단 스님들 대회 참가
각자 10분간 짧은 법문 후
'또 만나고 싶은 스님' 투표

의 마음을 울리길 원한다"고 여러 종단의 스님들이 함께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요닌 스님은 또한 "이번 대회에 나오는 법문들을 통해 단순한 교훈이 아닌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다양성과 찾길 바란다"며 "법문대회에서 지금과 미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8명의 스님, 7개 팀이 등록했다. 7개 팀은 대회의 계기가 된 진언종 후잔파를 시작으로 정토진종 오타니파(淨土真宗 大谷派), 일련종, 천태종, 임제종 묘신지파(臨済宗 妙心寺派), 조동종, 정토종 등 7개 종단을 대표한다.



기자회견에서 설법대회의 의의와 참가자를 소개하는 실행위원회.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대회에서 각 팀의 스님들은 각자 10분간 법문하며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대회장에 모인 방청객들은 법문의 내용에 대해 투표를 진행, 최고득표를 얻는 스님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법문 중에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다. 정토진종에서 출전한 팀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로 법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림연극을 직접 그려 법문에 이용하겠다는 팀도 있다. 참가하는 모든 스님들은 "이날을 위해 그동안 아껴둔 법문을 모두 풀어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사와 투표기준은 말솜씨나 내용의 구성이 아닌 '이 스님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다. 실제 심사위원단에 불교학자는 물론 유명 만담가나 라디오PD 등을 배석해 법문의 새로운 매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문을 통해 불교를 바로 믿고 따르기보다 불교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대회 의의에 따른 것이다.

대회는 오는 6월 2일 코베(神戸)의 천년고찰 스마데라(須磨寺)에서 열리며, 방청객은 선착순 400명으로 한정한다.

불교로 읽는 티베트 의학 세계

부랴트 공화국 역사박물관 '티베트 의학 지도' 특별전

불교를 근간으로 꽃피운 의술이 있다. 티베트 의학은 불교철학이 해석하는 인체구조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학으로 평가받는다. 티베트 의학과 불교의 깊은 연관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전이 러시아연방 부랴트(Buryat) 공화국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일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부랴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티베트 의학의 지도: 푸른 청금석의 광명'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전시회는 20년 전 처음 공개된 티베트 의학 자료전시회를 기념해 열렸다.

1923년 개관한 부랴트 역사박물관은 시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중 하나로,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 전해진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귀중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가장 귀중한 소장품은 총 76점에 달하는 티베트 의학 탕카(Thangka, 티베트 전통 불화) 완본이다. 5대 달라이라마의 지시 하에, 당시 최고의 의사였던 데시 쌍걔갸초가 그린 3부의 원본 중 하나로, 남은 2부는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보관돼 있다.


박물관에 공개된 의학 탕카들의 모습.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탕카들은 티베트 의학의 근본원전인 〈사부의전(四部醫典)〉에 대해 쌍걔갸초가 저술한 주석 〈푸른 청금색 (vaidurya sngon po)〉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16년간의 연구를 통해 그려졌다.

티베트 불교에서 의학에 대한 가르침은 약사여래가 석가모니불의 부촉을 받아 중생들의 병고를 치유하기 위해 설법한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렇기에 탕카의 가장 첫 장은 약초가 가득 피어난 만다라에서 푸른 몸의 약사여래가 의술을 설법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7세기에 조성된 이 원본들이 어떻게 부랴트에 완본으로 전해졌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학자들은 20세기 초 티베트와 제정러시아간에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승려 아그반 도르지에프가 부랴트 승려들의 교육을 위해 가져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부랴트 박물관 측은 "이 전시는 단순히 탕카들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티베트 의학의 연구와 적용에 큰 공헌을 한 부랴트 출신 스님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멈들어가는 룸비니를 되살리자"

멧테이야 스님, 옛 모습 잃은 룸비니 회복 운동

부처님이 태어난 성지 룸비니. 최근 기후변화와 지나친 관광화로 변해가는 성지 본연의 모습을 지키려는 스님이 있다. 룸비니에서 활동 중인 멧테이야 사캬풋타(32) 스님의 이야기를 지난 4월 11일 캐나다의 '킹스톤 휘그 스탠다드'가 전했다.

멧테이야 스님은 룸비니에서 태어난 의대 장학생으로 미래가 촉망받던 젊은 이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환경과학자인 비구니 보디 샤카디타(로리 포스터) 스님을 만나 2006년 출가를 결심했다. 이후 멧테이야 스님은 보디 스님과 함께 캐나다에서 캐나다 불교연합회를 창립하고 다양한 불교 전통을 공부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멧테이야 스님은 자신의 고향이자 성지 룸비니가 옛날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멧테이야 스님은 인터뷰에서 "룸비니가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고급호텔과 카지노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성지 본연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지구온난화로 룸비니의 습지와 강이 메말라 간다"며 "용수가 줄면서 지역의 주요한 산업인 농업이 피폐해져 간다. 생산되는 작물들을 모두 팔아도 농촌의 아이들이 굶주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룸비니의 성지 구역을 둘러싼) 벽을 넘어서면 가난이 만연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룸비니의 습지를 관찰하고 있는 멧테이야 스님. 사진출처=킹스톤 휘그 스탠다드

현재 멧테이야 스님은 캐나다 불교도들과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성지의 회복, 지역주민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먼저 태양열 급수펌프를 이용해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기금을 모으고 있다. 농업을 되살려 도시로 떠나간 노동력을 다시 불러 농촌을 부흥하고, 여러 습지 생물들을 보존하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보호받지 못하던 여성들을 위한 농장과 학교도 설립했다. 스님이 운영하는 2개 학교 1,600명의 학생가운데 60%가 여학생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간호사 학교 설립도 준비중이다.

조우인 객원기자

日 호류지 구세관음입상 춘계 공개

5월 18일까지… 백제 성왕 본 따 조성

한일 고대교류와 불교사에 중요한 사찰 호류지(法隆寺)가 비불(祕佛)로 관리해온 구세관음보살입상(救世觀音菩薩立像)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4월 12일 일본의 '나라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11일 호류사에서 열린 공개 기념 법회를 보도했다.

구세관음보살입상은 호류지 서원(西院)의 중심법당인 유메도노(夢殿)에 봉안된 관세음보살상이다. 높이 179㎝, 녹나무를 조각해 개금한 이 불상은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인 성왕을 그리워해 그 모습을 본 따 조성한 불상으로 알려졌다. 고대 한일교류사와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자료이면서 1천여 년 가까이 비불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환상의 불상으로 여겨지던 관음상은 1884년 도쿄미술대 교수였던 어네스트 페놀로사가 대중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실을 열어 공개했다. 당시 페놀로사 교수는 자신의 회고에 "세계에 유일무이한, 경탄을 금치 못할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호류지 측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일반에 구세관음상을 공개하고 있다.


춘계 특별공개가 봉행된 구세관음상.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11일 오전에 열린 공개기념 법회서는 대중스님들이 독경하는 가운데 관음상이 봉안된 감실 문이 열렸다. 호류지 관장(管長) 오노 켄묘 스님은 "오는 5월에 일본의 연호가 바뀐다. 연호가 바뀌는 이 시기에 관세음보살님을 공개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세관음상은 불상이 안치된 유메도노에서 오는 5월 18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공개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동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 규격참조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 조립식 프레임
백색 연분홍 금색
노랑(오렌지) 진분홍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